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 TEL: (0343)470-3155

## “일제 한국침략 불자로서 참회”

대행스님-日 정토종 총장 미즈다니 스님 대담

일본 정토종 종무총장(우리나라의 총무원장과 같은 지위) 미즈다니 고오쇼(水谷幸正)스님(72)이 2월 17일 방한해 각 종단 총무원장 스님들과 만난.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과 대담. 홍윤식 동국대 교수의 장년퇴임기념 논문발표식 참석 등 일정을 마치고 19일 출국했다. 한일 불교우호교류협회의 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한국과 일본의 불교교류에 크게 기여해 온 미즈다니 스님은 일본 대정대 이시가미 겐노 교수, 동국대 법산스님·홍윤식·염준근 교수 등과 동행해 18일 오전 안양 한마음선원을 찾았다.

미즈다니 스님은 해원 주지스님의 안내로 먼저 법당을 참배했다. 법당에서 정진중인 스님들 및 신도들과 만난 미즈다니 스님은 “불교를 일본에 전해 준 한국은 마치 형님과도 같은 존재인데 과거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지배한 잘못에 대해 불교인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늘 참회하고 있다”면서 “2.세기에는 수행하는 마음으로 한국 일본 중국이 마음을 합쳐 새 시대를 이끌어가지”고 당부했다.

다음은 한마음선원 원장 대행스님과 정토종 종무총장 미즈다니 스님과의 대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미즈다니 스님=한국에 올 때마다 불교가 살아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겠습니다. 특히 새로 신축된 한마음선원을 방문하니 21세기 앞서는 새로운 한국사찰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인상이 새롭습니다.

▲대행스님=시대가 변화하니 불교의 언어도 바뀌어야 하고 포교방편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불교는 진리 그 자체인데 진리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지구라는 공기주머니. 한 주머니에 들어있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쭙 불교가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미즈다니 스님=오늘 법당에 많은 신도들이 와서 열심히 정진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받았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절에 교양강연 들러 오기는 하지만 수행하러 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열심히 수행하는 것은 대행스님의 법력과 수행심에 영향을 받아서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신도들에게



◇2월 18일 안양 한마음 선원을 방문해 대행스님과 대담을 가진 일본 정토종 종무총장 미즈다니 고오쇼스님. 오른쪽부터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스님, 대행스님, 맞은편이 미즈다니 스님. 이시가미 겐노교수, 동역을 담당한 홍윤식 교수.

“진리는 하나...실천이 중요”

“신도 수행모습 보고 감명”

영향을 준다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지요. 깊은 수행력이 신도들에게 감화를 주어 이렇게 많이 와서들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대행스님=진리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실천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 모습 하나 하나가 공생이면서 공심, 공체, 공용, 공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면이나 외부의 일체 생명체들이 말을 하고 있지 않아도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미생물 하나라도 동일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대사 인연으로 미물 하나도 버리지 않았습니

다. 가르치는 사람이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 모두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아들과 하나가 되고 아들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와 하나가 됩니다. 일체가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일본은 불교국가라 할 만큼 불교가 성행해 잘 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정토종은 염불을 주로하는 종단이라 들었는데 종파가 다르다고 별개의 것으로 생각 안합니다. 참나 참나 돌아가고 정진한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염불하게 해 깨우치는 그 길은 제각기 찾은 것이니까요. 배우는 것도 깨우치는 것도 천차만별이지요. 말을 해도, 움직여서는 것도, 선을 해

도 각자 자신들이 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를 해도 선 아닙니다.

▲미즈다니 스님=우리 정토종에서는 염불속에 모든 일체의 행이 다 들어있다고 하며 염불로 정진합니다. 염불하는 것과 참선하는 것이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체종생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갈때 성불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요.

일본불교는 해외활동을 많이 하지만 대부분 교민을 위한 불교이고 현지인 교화는 부족합니다. 한마음선원에서 캐나다 독일 등 해외에 9개 지원을 설립해 현지인들에게 포교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디든지 가 무연종생을 포교하는 일은 훌륭한 일입니다.

정토종의 행정책임자로서 그동안의 해외포교에 반성을 하고 현지인 포교에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가르침 주시길 바랍니다.

정토종 조동종, 정토진종 본원사파, 정토진종 다국파와 더불어 일본 4대 종단중의 하나이다. 스님 1만여명, 사찰 7천여개, 신도 6백만명.

미즈다니 고오쇼 스님 9세때 출가했으며 지난해 11월 임기 4년의 정토종 종무총장에 취임. 현재 일본불교대 이사장과 전일본불교대 총장도 겸직하고 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 삼계에 있으면서도 마음 고요해야 참선

꿈에서 깨어있는 경우 있어...

문 저는 꿈속에서 깨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저의 의도대로 꿈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도 주인공에게 맡기고 나아가야 윤택지만 오래 전부터 생각해온 것인데 풀리지 않아서 스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스님의 법문중에 “꿈속에서도 꿈인 줄 알아야 꿈에 놀아나지 않는다”라는 글귀를 보았습니다. 스님! 그러면 꿈인 줄 아는 상태에서 몸이 깨어날 때까지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물론 그 상태가 모든 마음이 마음자리에 모여있는 상태여서 마음이 편안 상태라고는 생각되나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답 업식 속에서 고리에 고리를 물고 지구 생각이 나오면 그걸 놓아야 하는데도 오히려 꺼내가지고 생각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러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말합니다. 일부러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크게 부풀려서 답답하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아 나가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도 가지고 다니는 게 없잖습니까? 보는 것도 가지고 다니는 게 없고, 듣는 것도 가지고 다니는 게 없고, 만나는 것도 가지고 다니는 게 없고, 먹는 것도 가지고 다니는 게 없어요. 그냥 놓고 다닐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일으켜서 몽쳐 놓고는 답답하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생각하면 나는 대로 마음의 용광로에다 넣으면 자동적으로 재성이 돼서 나온다고 그렇게 일러줘도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성계의 얘기를 들은 무학대사는 지혜롭게 해몽을 해주었다는 얘기 알겁니다. 우리가 지금 거꾸로 다니고 바로 다니고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다닌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거꾸로도 되고 때로는 바로 되기 때문이죠. 사는 것조차 그런데 꿈이 고정됨이 있었습니까? 그건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이성계의 꿈 이야기를 들은 무학대사는 까마귀가 울고 간 것은



그림 · 최주현

진짜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내가 좋아지고 편안하기 보다 상대를 편안하고 자비롭게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에 들어갈 꿈이고, 색깔이 와르르 깨진 것은 모든 사람들에 게 소문이 날 것이고, 꽃이 와르르 떨어진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허수아비가 대문 밖에 매달린 것은 모든 만민들이 쳐다 볼 꿈이라고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정물을 새물로 바꿔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바로 굴러서 나쁜 상황을 바꿔놓는데 의미가 있고 묘미가 있고, 거기서 아주 지혜로운 실천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봤으면 진짜로 믿어야지 봤다가도 못 믿고 도로 끄 집어내고 하면 안됩니다.

결혼하면 해롭다고 합니다

문 저는 종교가 없는 한 젊은이입니다. 어느 분께 물어야 할지 몰라, 너무 가슴이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불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저는 만남이 2년 반이 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는 절실한 불교신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친구의 어머니가 다니시는 절의 스님이 저와 제 여자친구가 결혼하게 되면 여자쪽 집안의 부모님 중 한 분이 들어가신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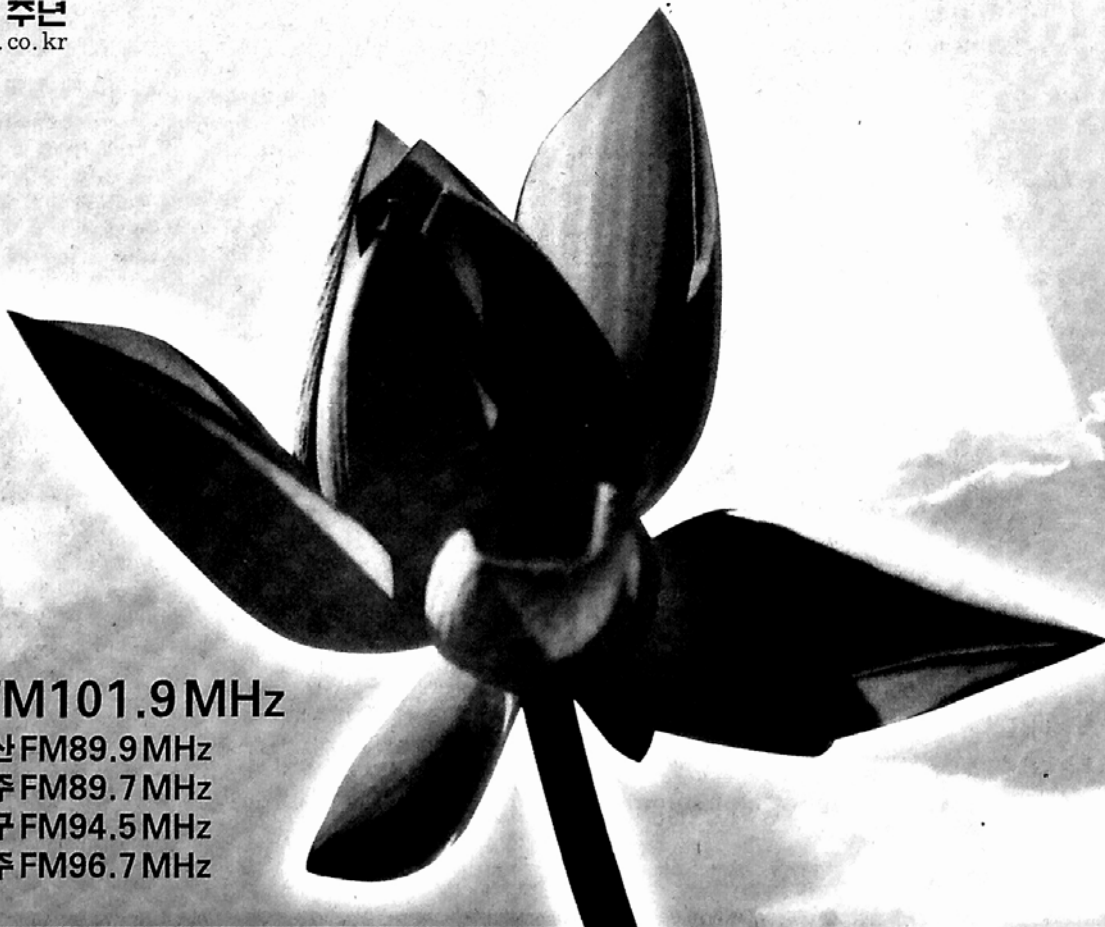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악근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개국 10주년  
 www.bbsfm.co.kr



## 진흙속에 연꽃 처럼 다시 피어나겠습니다

불자들의 염원속에 태어난 불교방송이 영광과 시련의 10년을 뒤로하고 새천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불교방송은 개국 10주년을 맞아 부처님 법음을 전파하는 미디어로서 새롭게 태어나 혼탁한 세상에 등불이 되겠습니다

불자여러분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갈  
 불국정도 건설을 위한 포교의 첨병이 되겠습니다.

서울 FM101.9 MHz  
 부산 FM89.9 MHz  
 광주 FM89.7 MHz  
 대구 FM94.5 MHz  
 청주 FM96.7 MHz

BBS 불교방송  
 서울·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대표(02)705-5114/FAX(02)705-5229  
 후원회 ARS전화 (02)700-0108